'동북아지역 평화와 발전(2023)' 학술 심포지엄 참석 출장보고서

2023. 10. 17

KDI 경제전망실

1 출장 목적

□ 최근 국제 통상 정책의 변화와 동북아 지역의 경제 구조 변화가 큰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관련 지역의 전문가들간의 학술 교류의 필요성이 대두됨.

□ 길림대학교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최근 경제 동향과 국제 통상 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Forum on the Peace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2023) Agenda for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를 개최할 예정으로 동북아 지역의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였으며, KDI의 한국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발제를 요청

2 출장 개요

□ 기　간: 2023년 9월 14일(목)~17일(일)

□ 출장지: 중국 Changchun

□ 출장자: 경제전망실 천소라 부연구위원

3 출장 일정

일자	시간	주요 일정(안)
9.14(목)	09:00~10:00	출국(Incheon → Changchun)
	15:30~17:00	심포지엄 관련 사전 준비
9.15(금)	09:00~14:00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소 한중 학술 교류 미팅
	15:00~18:00	Delegates Sign-in
9.16(토)	09:00~09:15	Opening Ceremony
	09:15~09:30	Group Photo
	09:30~12:00	Theme Reports
	12:00~13:30	Lunch Break
	13:30~15:00	Session 1: Reg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in Northeast Asia
	15:00~15:30	Tea Break
	15:30~18:00	Session 2: Economic Develop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9.17(일)	11:30~14:30	입국(Changchun → Incheon)

4 주요 논의 내용

1.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관계자 미팅

□ 일 시: 2023. 9. 15(금), 09:00~14:00

□ 면담자: Xuan Chunji (Associate Professor)

□ 주요 내용

○ 중국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의견 교류

○ 중국 인구 구조 변화와 일자리 상황에 대한 의견 청취

2. Forum on the Peace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2023) Agenda for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 일 시: 2023. 9. 16(토), 09:00~18:00

□ 장 소: South Lake Hotel, Chaoyang District, Changchun

□ 주요 내용

○ '2023 동북아 지역 평화와 발전 포럼'은 동북아시아 전문가나 학자들을 위한 학술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됨.

- 전문가들의 학문 교류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학문 공동체의 공통 의견을 확장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몽골 국가 안보 위원회 전략 연구소, 한국 세종 연구소, 일본 니가타 대학, 중국 사회 과학 아카데미, 중국 국제 문제 연구원, 베이징 대학, 중국 인민 대학, 부산 대학 등 40개 이상의 연구기관에서 온 130명 이상의 국내외 동북아 문제 전문가와 학자들이 이 포럼에 참석하였음.

○ 동북아시아 연구원 이사장인 장치영은 평화와 발전은 현재 시대의 주요 주제로 이는 세계 각국 인민들의 공통 소망임을 강조함.

- 동북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발전이 진행 중인 지역 중 하나로, 평화와 발전을 위한 과제가 불가피한 상황임. 고품질의 공동 발전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동북아시아 지역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자들의 협력이 불가피함을 강조함.

○ 중국 상무부 대표는 동북아 경제발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일본간의 동맹이 약화되고 있음을 언급함.

- 정치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에 놓은 한국과 일본, 두 국가가 최근 들어 공급망 전략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과거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타겟으로 산업망을 구축하였던 전략에서 베트남 등으로 산업망을 재구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한중일 협력은 낙관적이지 않으나 3국간의 상호 보완성은 여전히 크다고 판단함. 또한 한중일이 경제적으로 직면한 상황은 정치적인 요소가 크다고 보여짐으로 한중 협력의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국내 한국과 일본 기업은 미국쪽으로 이전하는 중이며 기술 산업의 동질화가 진행중임. 한국과 일본에 기술적 우위가 중국 기술력에 추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중일 경제협력은 상호신뢰와 전략적 신뢰가 모두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정치적 요소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임을 언급.